금남로에서

정 재 현

‘바람’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한다. 신록이 우거지고 다양한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연중 가장 아름답고, 무엇보다 모든 생명체가 생기발랄한 기운으로 충만해 자연과 상생(相生)하는 계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5월은 ‘계절의 여왕’을 상징하는 싱그러움, 생기(生氣),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 ‘북풍’과 같은 삭막한 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싸며 응징, 보복, 봉쇄, 전쟁 불사, 대량해고와 같은 듣기에도 오싹한 막말만이 오가고 있을 뿐이다. 십수년에 걸쳐 어렵게 쌓아 올린 남북 간의 대화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도 2010년 5월이다. 연중 가장 화사하다는 오월에 ‘화해·상생’에서 ‘대결·상극’의 시대로 다시 회귀한 걸 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맞긴 맞는 모양이다.

회색빛으로 점철된 오월

‘광주의 오월’도 회색빛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30돌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조차 불참 한가운데 두 동강이가 났다. 국가기념식에서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재갈을 물린 채 잔칫집에서나 들을 법한 ‘방아타령’이 흥겹게(?) 울려 퍼질 뻔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렇듯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얼룩진 5월의 끝자락 골목길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지방선거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고 보니 오늘로 6·2 지방선거가 꼭 1주일 남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떨이 선거’라고 한다. 한꺼번에 모두 8명에게 투표를 하라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그 많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히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일면식도 없는데 도대체 무얼 근거로 선택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옛날 학창시절 시험처럼 모르면 무조건 한 번호로 통일하여 찍는 ‘묻지마 투표’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6·2지방선거는 ‘떨이 선거’든 ‘묻지마 투표’든 그 어떤 지방선거보다 중요하다. 썩어빠진 지방자치를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0명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기소됐다. 뇌물로 감옥살이하는 공직자를 뽑은 유권자 의식과 정치 수준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유권자 혁명을 이뤄야 하는 이유다.

6·2 지방선거에서는 학연, 지연, 당파의식과 막연한 종교배경 등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왜곡하면서 각종 업자들과 유착될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며 얼굴을 내미는 정치 철새와 파렴치한 전과범은 아예 선거판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민주화의 배신자도 배척시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은 ‘바람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북풍’이니 ’노풍’이니 하는 것들은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국권수호와 철통 같은 국토방위는 바람 잡아 될 일이 아니다. 또 지역발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역시 바람으로 실현될 성질이 결코 아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실체가 없는 정치적 허구에 놀아나지 않도록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

‘북풍’ ‘노풍’은 허구다

지방정치가 올곧아야 중앙정치가 바로 선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균형발전이 가능해 진다. 진실하고 능력있는 지방일꾼을 뽑아야 우리 자녀가 중앙무대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국가의 안위도, 국론통합도, 서민경제의 회생도 지방자치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고, 지방자치의 존망은 용인(用人)에 달려 있는 셈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와 가족’의 미래가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할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을 뽑는 일이 지방선거의 핵심적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이뤄져야 참다운 민주주의, 다함께 잘사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음을 지난 지방자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6·2 지방선거에서의 현명한 선택으로 내년 5월만큼은 진정한 ‘계절의 여왕’으로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사 설

무차별적 선거홍보 시민들은 괴롭다

요즈음 시내 주요 도로나 아파트 입구 등을 오가다 보면 열띤 선거운동 분위기를 실감케 된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이 손을 흔들거나 명함을 돌리고 차량에 확성기를 매달아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과 선거 벽보판, 늘어선 플래카드 등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치열하고 교육감, 교육의원 등 뽑아야 할 대상이 많다 보니 과열 양상에 따른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시시각각으로 뜨고, 무차별 명함 살포에다 각종 소음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하루 평균 4~5건 정도 뜨는 게 보통이고 선거운동 홍보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온다.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경쟁적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사기 보다는 짜증을 넘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명함의 무차별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도로는 그야말로 명함 천지다. 선거운동원들이 명함을 나눠주는데 받지 않기가 민망해 받기는 하지만 결국은 도로에 버리기 일쑤다.

대형 스피커를 장착한 선거 유세차량에서는 대중가요를 개사한 각 후보의 로고송과 연설·대담이 쉼없이 쏟아져 귀가 먹먹할 정도다. 유세차량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나이트클럽(100dB 이상)의 소음 수준인 90dB로 나왔다니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이를 질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항의 전화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이를 규제할 법규나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들의 자제만이 해결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이야 당연히 해야하지만 과당경쟁은 오히려 ‘폐해경쟁’만 양산할 뿐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도 될 수 있다.

신 성장동력 ‘전기차 개발’ 광주가 선도해야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광주로 몰려오고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7~8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본사 이전과 공장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고 일부 업체는 이미 광주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했다.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내 16만5000㎡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전기차 공장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내 전기차 사업을 선도하는 시범단지 역할을 하게 될 ‘EV(electric vehicle)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가 전기자동차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전기차 업체들이 광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전지와 모터 등 핵심부품산업이 발달한데다 연구 역량 등 탄탄한 인프라 덕분이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도 포함돼 있어 지원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전기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충전소 설치와 세금 감면 등 파격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내도 인프라가 없으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교통법규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전기차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저탄소 산업의 상징이다. 미국·유럽연합(EU)이 그린카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설 정도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산업화에 뒤졌던 광주·전남이 전기차 개발을 선도해야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백 강 화

수달을 다시 보고 싶다

한 달 전인가, 방송에서 광주천 양동 복개상가 부근 광주천에서 수달이 나타났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다. ‘아! 광주천에 어떻게 수달이 나타날 수 있지?’ 그 소식을 듣고 맨 처음 든 생각은 기쁨보단 사실 의구심이었다. 수달은 생태계가 잘 발달된 깨끗한 환경에 살며 하천환경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종이라고 며칠 전에 섬진강 자연생태원에서 들었던 설명이 가물가물 떠올랐다. 솔직히 말하면 섬진강이라면 모를까 광주천은 수달과는 전혀 인연이 없을 줄로 알았다. 물론 그래서 보도까지 됐겠지만.

내가 아는 짤막한 수달에 대한 지식은 수달은 먹이가 풍부하고 주변 자연환경이 잘 발달되고 인적이 드문, 댐이나 강가에 살며 주로 저녁에 활동한다. 워낙 식성이 좋아 수시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바위 위에 올라가 몸을 털고 그 위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자주 똥을 싼다. 낮에는 바위틈이나 나무 그루터기에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주로 가족 단위로 모여 살며 무리를 짓지 않는다. 활동반경이 사방 10km 이르며 하천 최상위 포식자로 수달이 산다는 것은 하부 생태계도 건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주천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중이며 수량부족을 메우기 위해 하류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상류로 역 펌핑하여 흘려보내고 있다. 가끔 여름철 큰 비가 오면 물이 탁해져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질식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낚시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물고기나 양서류들의 숫자가 늘었고, 이를 잡아먹는 해오라기나 왜가리들이 광주천을 기반으로 생을 꾸려가기도 한다. 겨울이 되면 20종이 넘는 오리류의 철새들이 날아와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정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 나름 시나리오를 꾸며보면, 상류에 살고 있던 수달이 -이미 몇 년 전 환경조사에 의해 광주천 상류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확인되었다.- 인간의 간섭이던지, 호기심이던지 어떤 원인에 의해 광주천 중류까지 이동했고 며칠을 경쟁자 없이 먹이활동을 즐기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모여들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야음을 틈타 원래 자기 사는 곳으로 몰래 되돌아갔다.

만일 내 추정대로라면, 수달을 복개상가 주변에서 다시 보려면 수달이 중류까지 안심하고 내려올 수 있는 좋은 물길을 터주어야 하고, 행여 수달이 보이더라도 곁눈으로만 보고 모른 척하는 우리들의 배려심이 필요하며, 수달이 이동하는 통로에 수달이 놀고 숨을 수 있는 바위나 나무들을 잘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천바닥을 깨끗이 하고 도심의 유입 오염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더 세워져야 할 것이다.

수달 출현과 사라짐, 누군가는 별것도 아닌 해프닝 정도로 여길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귀한 진객인데 하며 몹시 아쉬워 할 수도 있다. 수달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천환경일지 모른다. 많은 이가 손님이라고 여기면 수달은 손님이 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귀한 손님이 오면 접대를 소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도 장만해야하고 집안청소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광주천 수달을 맞아봄이 어떨까? 〈주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차 재 준

‘비브리오’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온난화로 인해 세균과 바이러스의 원활한 번식, 복잡한 식품유통구조로 인한 식품 오염의 증가 등으로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과 해수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장염비브리오 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발현되는 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적(敵)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화(禍)를 피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에 장염비브리오 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자. 장염비브리오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의 일종으로 어패류의 껍질, 아가미, 내장 등에 주로 분포하며, 염분이 높은 바닷물에 서식하고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활발하게 번식한다. 반면 5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잘 자라지 못하며, 다른 식중독 균보다 열과 산성에 특히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염비브리오 균에 의한 식중독은 해안가의 어패류 판매 밀집지역이나 수도권의 횟집에서 집중 발생했으며 이는 대부분 적절히 취급되지 않은 어패류와 오염된 주방기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염비브리오 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를 구입한 경우 아이스박스에 넣어 신속히 운반하며 냉장(5도 이하) 또는 냉동(영하 18도 이하) 보관하여 균의 증식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패류 등은 충분한 온도(60도에서 15분 이상, 80도에서 7~8분 이상)에서 요리한 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 오염 방지의 중요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교차 오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손질한 칼이나 도마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묻어 있는 균이 다른 음식물에 옮겨져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를 손질하는 각 단계마다 칼이나 도마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염비브리오 균에 의한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 후 6~48시간(평균 12시간) 내에 설사, 복통, 발열,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증세는 2~10시간 계속 되지만 일반적으로 1~7일정도 경과 후 회복되며 전신감염증이나 사망은 드물다. 그러나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하여야 하고, 설사가 1~2일 지나도 멎지 않거나 복통·구토가 심할 때는 꼭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식중독이든 기본 예방원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이다.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를 통해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시 건강증진과장〉

아파트 고층에서 신발주머니 던지는 행위 ‘위험’

아침에 출근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길에 중학생 아이가 1층에서 자기 집에 인터폰을 하며 “엄마, 나 신발가방 안 가져왔는데 그것 좀 갖다줘”라고 하는 것이다.

그 직후 갑자기 아파트 꼭대기쯤에서 바닥 쪽으로 어떤 아줌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OO야, 던진다. 받어” 라길래 나도 그 쪽을 올려다봤더니 그 순간 14층쯤 되는 높이에서 한 아줌마가 뭔가 휙 내던지는 게 아닌가.

바로 전에 아이는 신발가방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엄마는 그게 귀찮아서였는지 아래층으로 냅다 던져준 것이다. 물론 신발이라는 게 그다지 무겁지 않아서 위험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던진 신발 가방이 자칫하다가 아파트 아래를 지나던 주민의 머리를 때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아프겠는가.

아무 생각 없는 어른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배운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그 엄마도 신발가방을 귀찮아서 바닥으로 던질 게 아니라 직접 들고 내려와 전해주는 게 교육적으로 옳다고 본다. 하물며 위층에서 물건을 휙휙 던지는 걸 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이솔·목포시 영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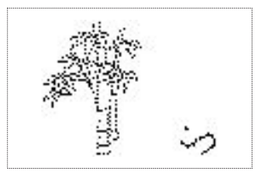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 等 鼓

대나무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곳기난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난다/ 뎌려코 사시(四時)예 프르니 그를 됴하하노라’

고산(孤山)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 네 번째에 등장하는 벗이 바로 대나무다. 대나무의 텅 빈 속은 무욕을, 죽죽 뻗은 모양새와 사시사철 푸른 잎은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표현했다. 시인·묵객들이 대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죽림칠현·죽마고우·파죽지세·백척간두·우후죽순 등 대나무와 관련된 사자성어도 많이 생겨났다.

대나무는 생활용품, 악기, 의약품 등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생활용품으로는 바구니를 비롯해 채반·부채·돗자리·죽장·삿갓·석작·죽부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비롯한 의학서적에는 대나무가 뇌졸중·해열·당뇨·두통·고혈압·임신빈혈·불면증 등에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히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최근에는 대나무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대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ha당 29.34톤이다. 소나무(7.68톤), 낙엽송(9.62톤), 잣나무(7.23톤)보다 3배 이상 많다.

그 뿐이 아니다. 대나무는 건축자재나 악기·공예품을 비롯해 웰빙 바이오 식품·기능성 섬유·첨단 바이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학제품인 PVC 등장 이후 쇠퇴일로를 걸어오던 대나무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담양군은 전국 대나무 재배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나무 천지다. 담양 죽녹원은 연간 150만명이 몰리는 관광명소가 됐다.

지금 담양대밭은 우후죽순의 계절이다. 이번 주말엔 죽마고우들과 죽녹원을 찾아 죽림욕을 즐기고 죽통밥에 죽순나물로 한끼 호사를 즐기고 싶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